



# 04

## 문화 관광

### 1. 코로나19 사태 전북 문화관광 부문 현황

김동영 연구위원\_문화관광연구부

#### 문화예술: 예술인의 생계와 문화시설 운영의 어려움 증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실태조사(2020. 3. 12~3. 18)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창작 및 교육활동 취소로 수입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 시설의 폐쇄로 인건비와 운영경비 지출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예는 수업과 전시 20건 취소, 판매와 체험취소로 수입감소 23건, 음악은 수업과 연주 51건 취소 공연 및 행사 11건 취소, 미술은 강의와 전시 23건과 행사 13건 취소, 연극은 강의와 공연 18건, 행사4건 취소 등 전반적으로 대면을 통한 문화예술 행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표>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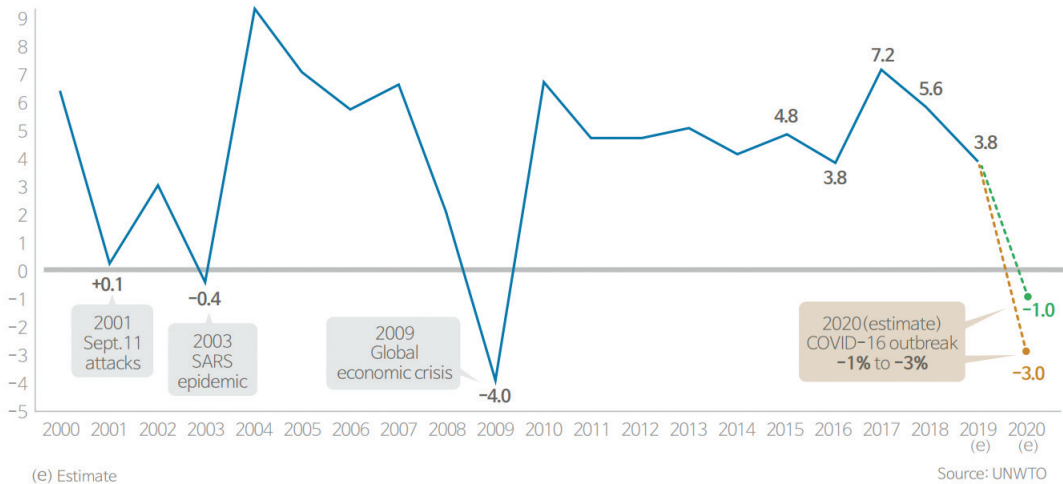
분 야	응답수	응답 비율	피해사례	요구사항	핵심사항
계	260	100			
공예	35	13.5	○ 취소사례 -수업 18건, 전시2건 ○ 수입감소 23건 (매출, 판매, 체험) ○ 임대료부담 3건 ○ 생계타격 11건	○ 시제품 개발 지원 ○ 무이자(저금리)대출 ○ 생계자금 지원 ○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실질적인 지원, 금전적 직접지원
음악	55 (개인 39, 단체 15, 시설 1)	21.2	○ 취소사례 -수업 23건, 연주 18건 -공연 및 행사 11건 ○ 단체연습 불가	○ 최소 생계유지 비용 지원 ○ 온라인 수익창출기회 제공 ○ 예술인 실업급여 마련 ○ 저금리 대출 ○ 방역물품 지원	실질적인 지원, 정부차원 방역
미술	33 (개인 23, 단체 5, 시설 5)	12.7	○ 취소사례 -강의 16건, 전시 7건 -행사 13건 ○ 임대료부담 5건 ○ 전시취소 위약금	○ 생계자금 지원 ○ 방역물품 지원 ○ 작품활동 지원 ○ 예술회관 대관료 탄력 운영 ○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작품활동 지원
연극	16 (개인 12, 단체 3, 시설 1)	6.2	○ 취소사례 -강의 7건, 공연 11건 -행사 4건 -연습공간 부족 1건 ○ 연습차질 ○ 활동취소로 심적 불안감	○ 재난상황 매뉴얼 구축 ○ 예술강사 복지마련 ○ 저금리 대출 ○ 하반기 활동 대책 (행정, 재정 지원) ○ 지원사업 기간 확대	공연취소예산 지원, 후속공연 활동 지원
문화 기획	14 (개인 6, 단체 8)	5.4	○ 취소사례 -강의 2건, 행사 8건 ○ 하반기 공연집중 걱정 ○ 생계위협	○ 생활안정금, 창작지원금 지원 ○ 온라인채널 문화플랫폼 개발 ○ 행사일정 조율 ○ 소규모 네트워크 지원 ○ 임대료 지원 ○ 예술인 최저시급제 도입	행사를 지속하는 방법 요구
다원 예술	14 (개인 7, 단체 6, 시설 1)	5.4	○ 취소사례 -강의 9건, 창작활동 10건, 행사취소 6건 -임대료 1건, 직원급여 1건 ○ 생계유지 어려움	○ 최저생계유지금 지원 ○ 비대면 콘텐츠 사업, 소규모 문화예술콘텐츠 사업 진행 ○ 프리랜서, 1인기업 특별공제 혜택 ○ 임대료 지원	1인 활동가 지원책 필요
문학	18 (개인 15, 단체 3)	6.9	○ 취소사례 -강의 7건, 창작활동 9건, 단체활동 2건 ○ 피해정도가 격차 있음 -중견은 단체모임 중단 우려 -원고집필 축소	○ 조건없는 대출 -서류 간소화 ○ 창작지원금 지원 ○ 생계지원 ○ 도서관 등 소규모 개방과 열람 요청 ○ 종식 이후 대책 마련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서예	13 (개인 9, 단체 3)	5	○ 취소사례 -강의 8건, 전시 4건 -단체전시 2건	○ 취소된 강의료 70% 지급 ○ 기초생활자 생계지원 ○ 임대료 지원 ○ 전업작가 지원	금전적 직접 지원
무용	6 (개인 3, 단체 3)	2.3	○ 취소사례 -강의 3건, 공연 3건 ○ 공연 발표시기 미정 ○ 단체연습 차질	○ 예술강사 생계비용 지원 ○ 저금리 대출 서류간소화 ○ 수업료 선지급, 안정화 후 수업 방안 마련	작품활동 차질 우려, 대출 서류 간소화
사진	7 (개인 5, 단체 1, 시설 1)	2.7	○ 취소사례 -행사 4건 -수입감소 2건 ○ 행사사진 촬영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생계위협	○ 임대료 지원 ○ 문화공공근로 지원 ○ 활동예정 행사 취소될 경우 차기년도 행사에 동일 참여 필요 ○ 운영경비(공공요금)지원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
전통 예술	26 (개인 14, 단체 8, 시설 3, 업체 1)	10	○ 취소사례 -수업 11건, 공연 12건 ○ 판매 감소 7건 ○ 하반기 대관문제 2건	○ 창작지원금 지원 ○ 저금리 대출 간소화 ○ 예술인과 함께 대안 마련 ○ 공연예술 공모 추가 확대 ○ 선 재정지원	창작활동 추가 및 확대 지원
기타	23 (개인 11, 단체 3, 업체 6, 시설 3)	8.8	○ 취소사례 -강의 4건, 창작활동 7건 ○ 판매감소 13건 ○ 직원급여문제 2건	○ 예술인 재택근무 마련 ○ 체험관광 체험비 지원 ○ 방역용품 지원	○ 응답분야 -비보이, 뮤지컬 -문화관광 -이벤트MC -제조업체 -여행사

출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



## 관광 : 2019년 동년월 대비 전북관광객 15.13% 감소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국제관광객은 1~3%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9~12%감소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시나리오1에서는 GDP대비 -0.073%, 시나리오2에서는 -0.103%, 시나리오3에서는 -0.193%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료: UNWTO(2020.3.5.),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rism

실제로 전라북도 관광객 또한 2019년 1월과 2월 관광객 423만명에 비해 2020년 관광객 366만명으로 -15.13%감소했으며, 1월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월에 들어 213만명에서 131만명으로 82만명 이상 줄어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기가 2월부터 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광객 감소는 3월 이후부터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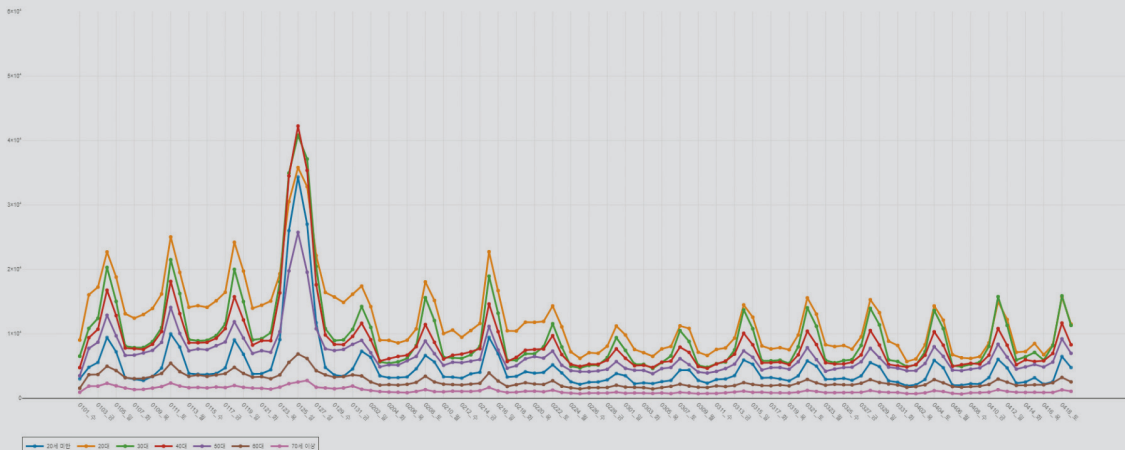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구분	2019년 전체			2019년 외국인			2020년 전체		2020년 외국인		증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평균
합계	2,172,057	2,129,214	2,173,235	11,332	10,565	17,448	2,344,595	1,306,065	6,025	2,945	7.94	-38.66	-15.13
전주시	153,380	228,559	262,862	2,954	3,026	3,644	165,184	74,015	1,220	419	7.70	-67.62	-37.37
군산시	411,768	458,549	451,624	100	-	100	386,231	236,850	20	-	-6.20	-48.35	-28.41
익산시	54,298	60,856	95,433	93	105	192	279,568	95,336	117	11	414.88	56.66	225.57
정읍시	49,637	56,306	74,973	393	235	287	93,407	36,878	363	-	88.18	-34.50	22.98
남원시	179,625	189,903	263,952	417	528	744	219,208	121,940	752	103	22.04	-35.79	-7.68
김제시	11,961	12,305	25,778	180	147	233	16,157	21,140	124	98	35.08	71.80	53.70
완주군	245,828	243,570	264,940	5,088	4,841	6,687	227,734	181,288	2,557	1,930	-7.36	-25.57	-16.42
진안군	55,329	79,608	123,223	730	672	1,113	50,805	40,086	531	170	-8.18	-49.65	-32.64
무주군	667,126	395,068	107,193	1,072	679	3,603	651,417	334,350	179	82	-2.35	-15.37	-7.19
장수군	17,350	17,382	21,481	35	34	44	18,158	14,580	28	7	4.66	-16.12	-5.74
임실군	19,265	16,238	34,038	12	18	12	12,652	6,721	-	-	-34.33	-58.61	-45.43
순창군	34,843	41,557	57,390	150	131	171	29,482	30,492	-	-	-15.39	-26.63	-21.50
고창군	181,922	219,230	267,021	108	149	249	112,108	72,746	134	100	-38.38	-66.82	-53.92
부안군	89,725	110,093	123,327	-	-	369	82,484	39,643	-	25	-8.07	-63.99	-38.88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0

일별 이동량 빅데이터 분석결과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설연휴인 1월 25일 피크를 나타냈다가 그 뒤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3월 14일 이후로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1월 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일상적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하여 관광관련 행위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이동량 빅데이터 분석결과>



자료: KT 빅데이터, 2020



관광객 감소는 관광관련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과 연계된 직간접적 종사자 중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총 3,807명으로 전년 3,123명에 비해 20%이상 실업자로 전락했으며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각각 37%, 27%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관광관련 종사자도 최근 들어 평균종사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관련 행위와 소비의 감소가 관광관련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관련 종사자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폐업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관련 업종의 국민의료보험 상실건수>

업종 대분류	상실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 종사 기간(년)
	2020년	2019년		
숙박및음식점업	2,065	1,630	27%	0.5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76	476	21%	0.90
운수업	432	369	17%	1.95
교육서비스업	292	301	-3%	1.1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33	194	20%	1.08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9	153	37%	0.99
계	3,807	3,123	20%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각 년도는 2월~3월을 비교한 것임

**문화콘텐츠 : 언택트로 인한 콘텐츠산업 기회확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이후 콘텐츠산업분야에서는 온라인(인터넷·정보통신) 산업분야는 사업비가 확대되었고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분야는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의 가장 큰 수혜분야로 언택트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관련 콘텐츠산업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공공(문화공간 등)장소 폐쇄로 인한 온라인콘텐츠 활용도가 급상승하였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 마케팅 홍보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게임과 홈쇼핑, 콘텐츠 다운로드(웹, 앱) 등의 이용률이 급상승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포스트 코로나19, 문화관광 트렌드 변화

### 포스트 코로나19, 문화관광분야 주요 전망

문화예술분야는 대면관련 체험이나 행사 등은 축소되겠지만 온라인 공연·전시 콘텐츠 등 언택트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쇼크의 장기화는 대면접촉에 의한 바이러스전파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패턴으로 이어져 당분간은 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라북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또는 교육·체험 등을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기업도 부족하여 온라인 콘텐츠 생산의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형태의 문화예술가들에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생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버투어리즘의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장기간의 관광객감소로 인한 관광기반의 해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한옥마을이나 군산 근대역사지구의 경우 기존 관광수용능력을 넘어서는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호소하는 투어리피케이션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하면서 관광객 밀집에 의한 환경오염 및 문화재 훼손 등이 나타나는 오버투어리즘의 해소로 관광지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전북 방문 관광객 감소가 도내 관광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업체의 파산위험이 우려되고 있다.(실제 폐업 수치는 코로나19와 유사수준)

문화콘텐츠분야는 언택트관련 신시장 개척이 기대된다. 비대면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및 AR/VR 등의 온라인 실감콘텐츠 관련 신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등 코로나19가 콘텐츠업체에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과 같이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지역이나 계층 간 데이터 격차가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배달의명수(군산시) – 배달, 온라인 주문
  - 군산시에서 개발/구축하여 만들어낸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공배달 앱
  -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 앱으로 2020년 3월 13일 정식 출시 운영
  
- 기반 개방형 플랫폼(EDISON) – 비대면 온라인 교육
  - 현재 7개 전문분야\*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900여개 시뮬레이션 SW와 850여개 교육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 \* 전산열유체, 계산화학, 나노물리, 구조동역학, 전산설계, 전산의학, 도시환경
  - 국내 58개 대학교, 2,119개 강좌에서 74,000여명이 활용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트렌드 변화가 전북의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변화는 관광객 감소, 문화예술 향유라이프스타일 변화, 문화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에서 전라북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외국인 타시도 문화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는 문화관광분야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최소 2년의 기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2년 여간 관광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광인프라의 해체라는 위기국면으로 치다를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감소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발굴과 향후 회복소비를 대비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프로그램 등 투트랙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예술 향유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관람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직접적인 관람 문화에서 비접촉 관람문화로 관람문화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장 관람을 할 경우도 위생과 관련된 제한환경을 더욱 강화하여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감소할 수 있는 관람문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문화예술 향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문화콘텐츠 분야의 언택트 신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정부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산업정책으로 5G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G뉴딜 사업은 기존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 관련 신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게임, 웹툰 등 기존 유해콘텐츠로 인식되던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개선으로 인터넷 콘텐츠관련 산업의 확대 또한 기대된다.

### 3.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대응방향

####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문화예술부문 대응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대응은 예술인 생활자금 지원, 행사 선금지급, 문화시설 방역체계 구축 등의 단기적인 대응과 예술뉴딜을 통한 예술가 일자리 창출, 실감콘텐츠 및 O2O활용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술가 증빙조건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이자)을 활용하여 긴급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나 축제 출연예정이었던 문화예술가(단체) 및 예술강사와 문화관련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지급될 예산을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선금으로 지급하여 우선적으로 활동의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점차적으로 공연예술향유를 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소규모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의 위생관련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 문화시설 보건위생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들과 코로나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라북도 예술뉴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유휴공간에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공간을 재창조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아트재생의 효과와 예술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1천억 규모의 모험펀드와 연동하여 전라북도 콘텐츠벤처펀드를 만들어 예술가와 ICT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실감콘텐츠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공공재로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지원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보재의 결합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강화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O2O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지원도 필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콘텐츠와 교보재의 제조라는 두 분야의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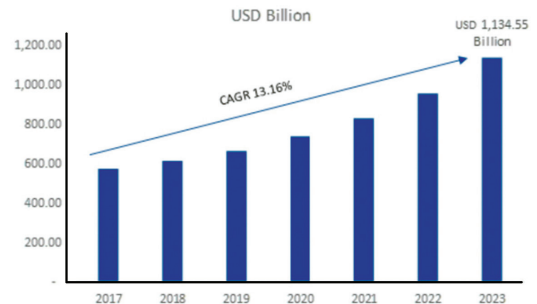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19 전복 관광부문 대응 방향

관광분야의 단기적 대응으로 관광시설 방역물품 지원, 전복도민의 여행심리 회복, 관광영세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관광은 바이러스의 전파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가 관광지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광지 및 실내 입장시설 등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라북도 관광지는 안전한다는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 시도로의 관광을 꺼리는 단기상황에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탐방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우리동네 여행주간 운영하여 여행심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자전거 코스, 도보여행, 차박여행 등 비대면 관광상품을 만들어 국내 관광객의 전복방문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여행활성화시 필요하지만 영세하여 고사될 위기에 있는 관광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통해 관광인프라의 지속을 도모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19 관광을 위한 전복형 OTA(Online Travel Agency)플랫폼 구축, 코로나19로부터 안심 관광지 조성, 언택트 마이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정에 필요한 숙박과 교통 및 음식 등에 관한 검색과 예약이 점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여행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여행지에 맞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검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라북도형 로컬 OTA플랫폼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관광객들에게는 전라북도 관광지는 코로나19 대응이 잘 되어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광 관람시 거리두기, 관광객 위생지원 등의 조건을 따져 코로나19 안심 관광지를 지정 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부터 청정전복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자연친화적이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태 관광지를 활용한 힐링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팅 테크놀로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행사장의 컴퓨터그래픽 구현, 실시간 미팅과 강연, VR체험 등이 가능한 미팅 테크놀로지 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코로나 전복 마이스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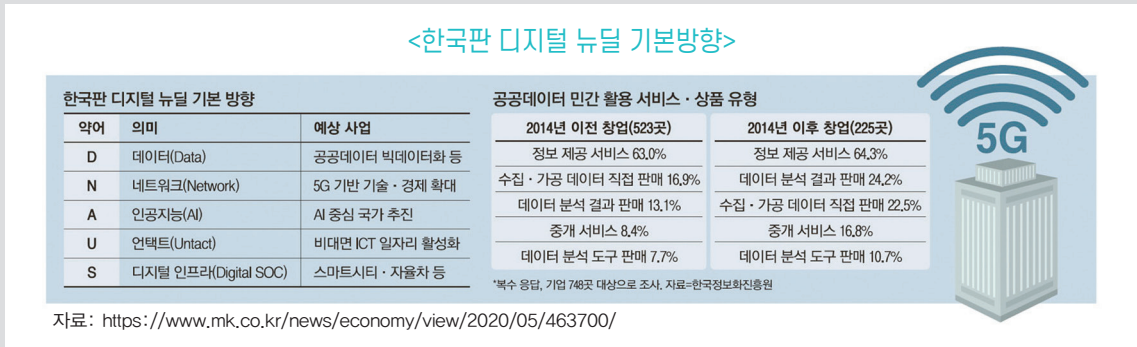
### <온라인 여행시장 전망>



자료: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reports/online-travel-market-5182>

## 포스트 코로나19 전복 문화콘텐츠 대응 방향

문화콘텐츠 분야는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에 대응해 전복형 선도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하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전복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동시에 전라북도를 5G·AI·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전통적인 도로나 항만 등의 인프라에서 뒤쳐진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도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5G뉴딜사업 중 전복 선도사업을 만들어 추진해야한다. 오프라인업체의 온라인 서비스화를 위해 온오프 연계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향후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트렌드에 맞춰 기존업체와 언택트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화해야 한다. 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분야는 언택트 관람이 하나의 추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다. 온오프 두 분야가 결합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융합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전복의 대표적 언택트 기업육성도 필요하다. 가정 내 체류시간 연장에 따른 영상 콘텐츠, 음악, 게임, 웹툰 등의 온라인 콘텐츠와 VR/AR, 홀로그램 등의 신시장 온라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해 코로나19를 전복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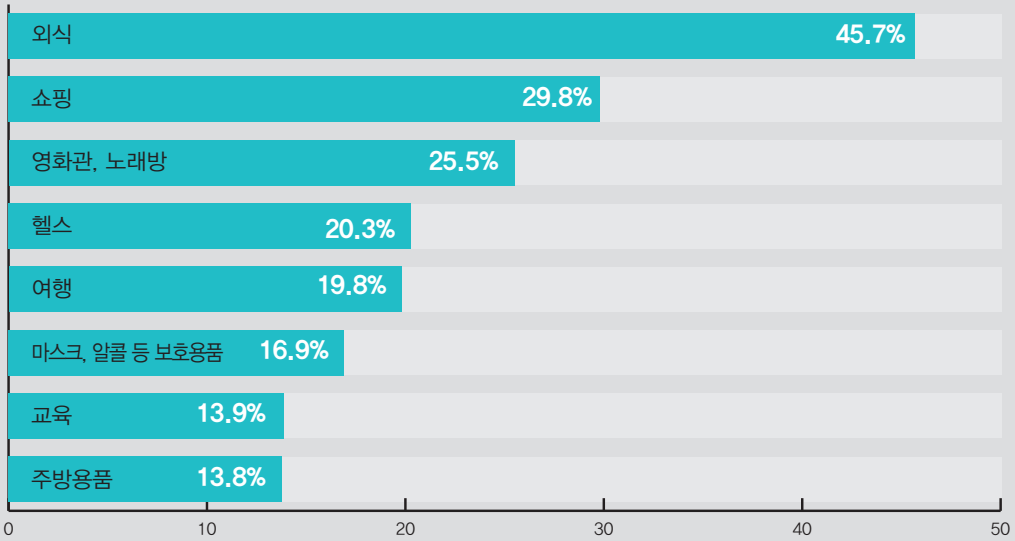
### 문화예술관광분야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정착

공연예술과 관광분야의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건위생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접촉을 꺼리고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접촉이 없는 비대면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이나 관광의 소비패턴이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소비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영상을 통한 대리관광 만족이나 AR, VR을 통한 간접체험 등의 콘텐츠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의 명수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의 그동안 소비되지 않던 수요자의 언택트 플랫폼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언택트 소비자를 충족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의 정착은 공연예술과 문화관광 등에 위기와 기회 요소로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라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향후 컨택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강화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 보상소비 대응과 비대면 콘텐츠 시장 선도

최근 코로나19가 점차 회복 추세로 접어들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 바 '보상성 소비(补偿性消费)'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상성 소비'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존의 소비계획과 욕망이 바이러스가 점차 감소하며 일시에 분출되는 소비 현상으로 그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크면 클수록 실제 소비지출의 양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3월 10일 장쑤성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발표한 '코로나19가 장쑤성 주민들의 소비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사보고서(조사기간: 2월 25일~3월 1일, 2만1192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의 소비자들이 바이러스에 기인한 '보상성 소비'를 지닌 것으로 응답했으며, '보상성 소비'의 5대 주요 영역으로 외식, 쇼핑, 영화관람, 운동, 여행을 뽑았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0. 5. 27)

<코로나19 이후 '보상성 소비'의 주요 영역>



자료: 코로나19가 장쑤성 주민들의 소비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사보고서(장쑤성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전라북도도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보상소비를 대비한 문화관광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전염병에 취약한 밀집된 공간과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 방문 등의 문제를 향후 관광객 관리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보상소비가 여행과 쇼핑분야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 청정과 힐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 청정 명품관광지 조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보상소비에 대비해야한다.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될 것에 대비해 기업들의 비대면 콘텐츠와 서비스 및 웹기반 개방형 플랫폼의 증가를 준비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콘텐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과 기업육성이 필요하다.